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8.1. vol. 22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기사내용 미리보기

01 성시화 2018년 성시화운동의 비전
02 특집 신년인사
03 특집 / 칼럼 신년인사 /예배참석
04 탐방 연탄은행
05 기획 공동체와 자살예방
06 가정회복시리즈 운동화와 여권
07 전문영역 일본사회연구 2
08 음악이야기 독자 기고문 솔베이그의 노래 웰빙 떡
09 잠깐 이슬람의 왜곡된 진리
10 교계 및 교회 소식
12 알림 / 후원자 명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본부장 조영춘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신재원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033-256-1260 033-257-1260
holycc1972@daum.net

2018년에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시화"라는 단어에 무관심을 보이며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무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시화라는 강렬한 단어보다는 좀 유한 단어가 좋지 않는가하는 제안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성시화 운동을 불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믿는이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성시화"란 단어를 풀이해 보면 거룩할 聖, 도시 市, 변화할 化이다. 즉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인 셈이다. 그렇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목적이다. 이것은 또한 신약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이다. 그렇다면 성시화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1호 관심사 아니, 삶의 목적, 목표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시화는 목회의 최우선순위여야 한다.

성시화가 운동성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기는 하다. 운동이란 바람을 일으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몰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시화를 어떤 운동처럼 벌여서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사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은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운동에 대한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1의 목적인 거룩함을 위해 운동을 일으키고 거룩함을 향한 목적지향적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지당하다. 그러므로 성시화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시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개교회 부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오늘의 교회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구원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 교회부흥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어느 목적이든 영혼구원이 되니까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싶다. 생각해 본다. 아무리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 성시화 곧 내가 사는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 폭 넓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은 앞서서도 표현했지만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는 곳에서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Goal이 아닌가?

따라서 2018년은 성시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알려 운동을 일으키는데 주력을 꾀하고자 한다. 2017년은 부채를 청산하는데 주력하여 거의 정상화를 되찾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시화를 위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매진코자 한다.

첫째, 일만인 기도운동을 교회마다 펼치는 것이다.

각 교회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시화를 꾀하기 위한 기도에 교우들이 참여토록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2018년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운동에 참여토록 홍보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았다. 만 명이 일시에 동일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뭐가 안 되겠는가? 또한 기도회원들이 천원씩 만이라도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일천만원의 헌금이 모인다. 그러면 성시화운동본부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작고 큰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만 명이 일만원의 기도헌금을 드리게 된다면 일 억원의 헌금이 확보된다. 그러면 아무리 큰 개교회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지금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나이가 60대이다. 젊은 목회자, 평신도가 이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성시화 운동은 잠깐 벌이고 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젊은 열정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비롯한 영적 그룹 즉 중보기도, 인재양성, 선교, 도시진도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도헌금을 각 네트워크가 벌이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때 비로소 춘천성시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밑바닥부터 일어나는 성시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의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춘천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성시화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글. 박인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염감리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외적 핍박과 내적 분열을 이기자



회장 신재원 목사
(새춘천교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역사적으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외적 핍박과 내적 분열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늘 있었다. 외적 핍박은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다. 모든 사도는 외적 핍박으로 대부분 순교 당하였다.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다.

그러나 내적 분열은 다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분열의 원인을 시기와 분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였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고전 3:3)

분열은 죄라는 것이다. 어떤 명분을 앞세워도 죄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심이 본질이다.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다. 시기하는 일은 가인처럼 돌을 드는 일이다. 서로 시기하면 당사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공멸로 이어진다.

외부의 핍박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주께 맡기면 주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적 분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결된다.

누가 더 높으냐 다투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제자의 길은 시기 다툼이 아니라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길임을 행동으로 말씀하셨다. 대접받으려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초대교회도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원망이 터져 나왔고,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로 나누어졌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선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탓하며 책임 전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 그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사도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었다. 문제해결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생명을 살리고 성숙한 사람 만드는 일인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사도들은 오로지 이 일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였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가 교회통제 수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단 문제, 북핵 문제는 갈수록 커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이겠는가? 교회 본연의 존재 이유인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는 일이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나의 영혼이 눅15장의 두 아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탕자처럼 아버지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관심을 쏟지 못한 큰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오직 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면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부흥하게 될 것이다.

춘천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2018년 되시길 기도합니다.

춘천목회자연합회

한마음이 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홍요셉 목사
(예사랑침례교회)

우리 모두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춘천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문인 춘천성시 신문을 통해 새해 인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연합회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임원들과 함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춘천에 교회를 개척한 지가 30년째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가량을 춘천에서 보내게 된 것이지요. 어쩌다 교단별 순서에 의해서 목회자연합회장이 되었지만, 회장이 되기 전에도 이 도시의 복음화율이 90%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목회자연합회에서 전남 영광군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그 기도는 더 강력하고 간절해졌습니다. 영광군은 군민의 90%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광군이 된다면 전 세계성시화의 발원지인 춘천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국가적 난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초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중반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영특한 국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8.15 광복 이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드의 압박, 북한 핵 위협 등이 그대로 있지만 올해도 우리는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춘천기독장로연합회

은혜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행복시대를 열어 갑시다



31회기 회장 김정호 장로
(춘천제일장로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축복이었고 행복한 2017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춘천의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행복시대를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춘천기독장로연합회 31회기 회장으로 부족한 저에게 장로회 연합회장의 중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대 회장님들과 모든 장로회원님, 목사님과 모든 춘천의 성도님들께서 이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고기도와 지도 편달로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춘천기독장로연합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모든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잘 계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더욱 성숙한 장로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미력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춘천홀리클럽

2018 춘천홀리클럽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회장 임운식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춘천홀리클럽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춘천의 성시화를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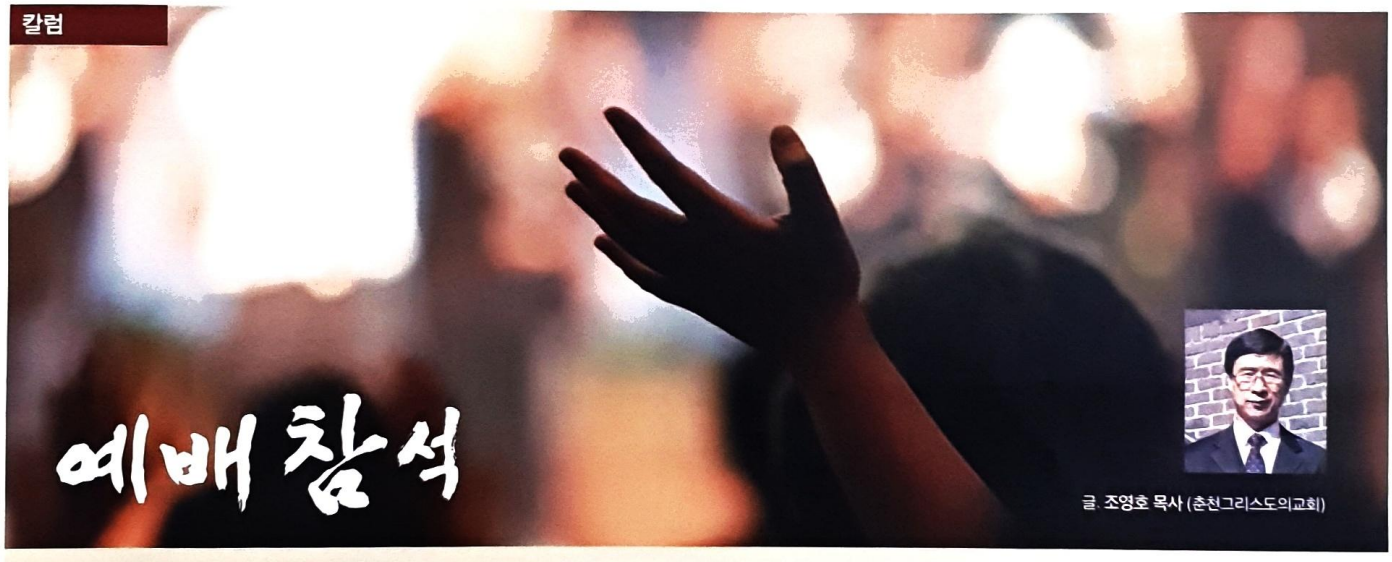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춘천홀리클럽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 춘천의 모든 시민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도시의 복음화와 성결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왔습니다. 이것은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려는 여러 성도님의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과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세태가 험악해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춘천에 성시화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를 때이며 이 성시화의 불길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할 때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 춘천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며 특히 올해에는 그 실천으로 각 교회의 새벽기도 부흥을 위하여 여러 회원님과 함께 순방하며 기도의 불을 붙이는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 회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주님 주신 사명을 좇아 열심히 할 것을 함께 다짐해봅니다.

밝아 오는 2018년 주님 주신 소망을 품고 섬기시는 각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칼럼



글. 조영호 목사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창 4:4-5) 그들의 신앙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루이 14세 왕과 그 식구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왕이 출석하는 이 교회에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문제였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이 매 터지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이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루이 14세와 그 식구들이 교회에 가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왕을 만나 얼굴도장을 찍으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음 주일은 왕이 못 나오십니다.'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누구를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자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기피할 때, 교회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다른 사람들로 예배는 여전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특권이오, 또한, 하나님을 위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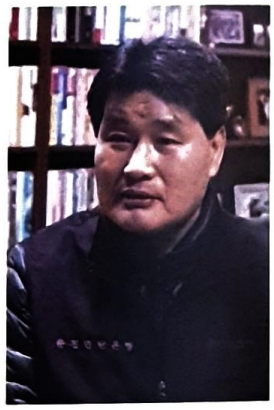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예배를 잘 드리겠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쫓기듯이 돌아다니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막 보는 행동입니다. "예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당연히 할 일이라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는 배교(背敎)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에서 당신의 모습이 항상 자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나서 입원을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데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방



사랑의 불을 지피는 춘천연탄은행



정해창 목사
(대표. 제자감리교회)

춘천연탄은행은 지난 2004년에 정해창 목사(대표. 제자감리교회. 춘천시 동면 장학리)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몇몇 젊은이들, 동역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나아왔다. 귀한 사역이 12년을 이어오는 가운데, 많은 선한 손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최상도 목사(편집위원): 반갑습니다. 정 목사님. 그동안 연탄은행 사역이 매스컴에 많이 소개되기는 했습니다만 정 목사님의 신앙적인 계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부터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목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청년사역이 꿈이었던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젊은이 사역은 서울에서 사역할 때나 미국 유학시절에도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유학시절, 리더십에 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세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귀국해서는 100년 된 교회의 청년사역을 맡아 멘토링을 중심으로 활기차게 청년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춘천으로 내려오고 나서도 한림대와 강원대를 중심으로 대학사역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그다지 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경으로 기억하는데, 혹독한 겨울임에도 연탄불을 때지 못하는 산동네 가정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스치는 영감에, 아는 장로님과 강원 도청 밑의 요선동 산동네를 현장 답사해 보았습니다. 연탄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산동네까지 배달이 불가능해 고통을 겪으며 쪽방의 냉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지체들을 설득하고 비용을 마련해서 2004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에서 첫 삽을 떴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와 초기 사역을 비교하자면 원주는 필요한 주민들이 일부러 와서 가져가는 방식이고, 우리는 각 가정마다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힘은 몇 배가 더 들었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춘천이 모델이 되어서 전국 34개 지역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도 목사: 그러면 전국 34개 지역이 연탄사역을 할 때 그 주체가 조금씩 다를 텐데, 주로 어떤 주체들이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약 80% 가까이가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연탄은행 사역은 간접 기독교 복음운동입니다. 사회복지선교입니다. 물론 이 연탄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주님을 직접 소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탄이 사랑이 되고, 찬송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연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이 연탄 뒤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 뒤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역을 통해 무슨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3년을 변함없이 한 눈 팔지 않고 몸을 낮추어 겸손하게 사역하다보니 이제는 주위의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도 목사: 사역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웃음) 지금 춘천연탄은행의 사역이 1천여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3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춘천에 연고가 있고 사정을 잘 알았다면 감히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한 겨울에 나와 몇몇 지체들이 조금만 고생을 하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저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줄 알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사역을 할 줄 알았더라면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라면, 연탄사역의 봉사자들이 주로 12월, 1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는 합니다만 겨울이 긴 춘천으로서는 사실상 1년 내내 골고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상도 목사: 앞으로의 꿈과 구상하고 있는 일들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다만 지난봄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소양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에서 [하늘밥상]이라는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탄사업도 중요하지만 겨울에만 돕는 절기사역이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60-70명의 독거노인들과 실버세대, 노숙자, 거리의 천사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성황리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인 3천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걱정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모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탄은행과 하늘밥상 사역 등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재. **최상도 목사** (사임성결교회)



공동체와 자살 예방

최근 연예인의 자살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자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솔직히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살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사춘기 시절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절망감이 극대화될 때 '죽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두 번은 경험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모두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제1위의 사망원인은 암이지만, 자살률은 21.9%로서 교통사고보다 높은 5위에 달했다. 그러나 연령층별 사망원인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암이 가장 잦은 사망 원인이었지만, 10~30대의 청년층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 아니라 자살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그다음이 일본으로 나와 있을 정도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까? 단지 죽겠다고 위협하여서 주위의 시선을 끌려는 충동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 자신을 벌하기를 원한다. 2)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생애를 끝내려고 한다. 3) 다른 사람을 상징적으로 죽이기를 원한다. 4) 자살행위는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가져온 뇌 속의 생화학적인 변화의 파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자살자는 고통을 받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자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살은 경쟁의 사회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언젠가는 추락할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단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자살 문제에서 완전히 면역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풍조에는 일확천금, 일류병, 호화로운 사치, 황금만능 등에 물들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스피드와 과중한 일, 불안정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한국 사람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것은 통계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십 대의 자살원인 1위는 부모와의 갈등(29.5%), 2위는 친구와의 갈등(14.8%), 3위는 학교문제(1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자살원인 1위는 연인과의 갈등(34.3%), 2위는 우울증(15.3%), 3위는 부모와의 갈등(14.8%) 순으로 나타난다. 30대의 자살원인 1위는 배우자와의 갈등(32.1%), 2위는 우울증(19.9%), 3위는 연인과의 갈등(7.7%) 순으로 나타난다. 40~50대의 자살원인 1위는 배우자의 갈등, 2위는 우울증, 3위는 체무나 질병의 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자살원인 1위는 질병(35.9%), 2위는 우울증(15.5%), 3위는 부부간의 갈등(12%)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학교나 직장만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경쟁 관계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만 빠져나와 살 수 없다. 또한 경쟁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경쟁 사이클 속에 빠져 들어가면 이기느냐 지느냐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쟁 구조 속에서는 남보다 더 성취하고, 빨리 진급하고 승진했다고 해서 승리감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된다. 반면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에 자기 회의와 패배감 속에 삶의 의욕을 잃으며 우울증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쟁구조 속에서는 승자나 패자나 모두 경쟁 구조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성공지향, 물질지향, 외형주의에 집착하는 것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우울증에서도 자살 충동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코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서로 경쟁하였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서로 다투며,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해결책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20:25-27)고 말씀하셨다.

자살은 도덕적인 관점이나 영적인 관점을 떠나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빼앗을 수 없다. 자살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지지망을 형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지하고 함께 근심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욕망을 경감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자살자를 보면 가정에서도 고독하고, 교회나 직장에서도 구성원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 안에서 자살 행위는 '도움을 청하는 호소'로 묘사된다. 이 울부짖음에 대해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인의 돌봄으로 반응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복음만이 이 절망감에 빠진 자들에게 진정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주로 '자살이 죄이다'는 율법적인 선포가 자살 방지의 최선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 오히려 깨어진 인생을 섬기려는 종의 역할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만큼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한, 지지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있는 곳도 교회이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의 소그룹 모임 등 이런 다양성을 갖춘 공동체가 교회 말고 또 있을까. 그뿐인가? 성령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생애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위대한 무기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글. 최영조 목사 (갈릴리교회)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기

자녀의 실수를 야단치지 않는다

[운동화와 여권]

초등학교 1학년 가을이었다. 아버지는 추석 선물로 내게 운동화를 사 주셨다. 시골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좋은 운동화였다. 아버지는 추석날 신으라고 했지만 나는 며칠 더 기다리기 힘들었다. 학교가 파하자 곧장 집을 향해 뛰었다. 검정 고무신을 벗어던지고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바닷가 솔밭에서 아이들과 달리기 시합을 했다. 소나무 타고 오르기 시합도 했다. 마을 앞 신작로를 달리며 돌멩이를 차기도 했다. 운동화를 신으니 돌을 아무리 차도 발이 아프지 않다며 몇 번이고 아이들 앞에서 돌을 걷어찼다. 그러다가 너무 힘껏 돌을 차는 바람에 발에서 벗겨진 운동화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운동화는 논두렁 옆 둠벙에 빠졌다. 허겁지겁 막대기를 찾아 들고 꺼내려 했다. 이리 저리 막대기를 휘저을수록 운동화는 물밑으로 가라앉더니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를 친구들이 모셔왔다. 아버지 손에는 커다란 양동이가 두 개나 들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야단 맞을까봐 짚더미 뒤로 얼른 숨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슬쩍 보시고는 물 둠벙으로 향하더니, 내 친구들에게 모두 물을 푸라고 했다. 아버지가 먼저 양동이로 물을 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양동이나 바가지를 들고 와서 물을 퍼냈다. 어떤 아이는 고무신을 벗어 물을 떠냈다.

나는 옷소매로 눈물을 쓱 닦았다. 우리 아버지와 노는 아이들이 무척 신나 보였다. 짚더미 뒤에서 나온 나는 슬쩍 아버지 옆으로 갔다. 아버지는 너도 물 푸면서 함께 놀라는 눈짓을 했다. 나도 물푸기 놀이에 끼어들었다. 물을 푸다가 붕어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았다.

마침내 바닥에 박혀있던 운동화가 보였다. 아이들은 운동화가 보인다며 야단이었다. 아버지는 둠벙 한 가운데로 성큼 걸어가서 운동화를 끄내셨다. 아이들은 자기 운동화를 끼낸 것 마냥 소리 질렀다. 아버지는 진흙으로 범벅인 운동화를 건네주면서 말씀하셨다. "집에 가서 네가 빨아 신어라. 엄마한테 빨아 달라 하지 말고." 나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내 운동화는 내가 빨아 신는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즐거운 물푸기 놀이를 추억 하면서.

그리고 20년 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 되기를 내 삶의 목표로 세웠다. 그 실천 방법 중 하나로 나는 아이들과 여행을 다녔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한 명씩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다같이 함께하는 가족 여행도 좋았지만, 단 둘이 떠나는 여행은 더 특별했다. 대부분 선교지를 방문하는 내 사역 일정에 맞추어 함께 갔다.

큰 아들이 13살이 되던 해, 인도 델리 대학사역자 훈련학교와 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 강의 일정이 있었다. 아들과 함께 갔다. 사역이 끝나면 우리는 인도의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에 가기로 했다. 출발 며칠 전부터 아들은 신나게 여행 준비 했다. 인도 특산물을 미리 조사하고 타지마할에 대한 책을 읽었다. 인도에는 정말 소가 많은지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출발하기 전날에는 밤늦도록 짐을 싸느라 잠을 못자는 것 같았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돌아다녔다. 우리는 아침을 먹자마자 여권을 챙겨서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으로 뛰어 들어가는 아들의 들뜬 모습이 나는 보기 좋았다. 탑승권을 받고 출국장으로 가는 아들의 발걸음은 홍겨웠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갔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여권이 없다고 아들이 말했다. 비행기 출발 30분 전인데 아들이 여권을 잃어버렸다. 출국 신고할 때는 여권이 분명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무지 기억을 못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더니 거의 울상이 다 되었다. 그때, 아버지와 했던 물푸기 놀이가 생각났다.

나는 괜찮다며 아들을 안심시켰다. 이제부터 설록 홈즈 놀이를 하자고 했다. 우리는 온 길을 되짚어 가며 여권 찾기 놀이를 했다. 나는 아들을 보고 웃으면서 명령을 내렸다. "여권을 찾아라!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 한 팀이다. 이번 여행은 출발부터 신나는 여행이다. 여권을 찾아라!" 출발 5분 전, 아들은 여권을 찾았다.

자녀들은 살면서 실수한다. 크고 작은 아이들의 실수는 때로 부모를 힘들게 하지만, 누구보다 실수한 본인이 더 힘들다. 그 실수들이 좋은 아빠가 되도록 기회를 준다. 먼 훗날, 자녀의 기억 속에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가?

글. 홍장빈 목사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글로벌 리더의 첫걸음
자연유치원
원장 이관형(한길교회 권사)
24312 강원도 춘천시 복골길 29
☎ 033.241.5511, 5522

표어: 영혼구원에 불타는 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길교회



담임목사
최 정 식

원로장로 : 최영진 박능혜 명영을 권오윤
명예장로 : 어 청 박금자
시무장로 : 김승덕 이석빈

강원도 춘천시 복골길 29 (후평동)
T. 033-253-2333
F. 033-242-5544

일본사회연구 2

한국사람이 일본인과 결혼한다면?



일본에 간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일본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것이다. 일본인은 우리와 외모도 비슷하여 거리감이 크지 않고 참신한 느낌도 있어서, 호감 가는 상대가 있다면 쉽사리 결혼을 전제로 하여 교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본인과 결혼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주위의 많은 한일 커플들을 만나 결혼생활에 관하여 면담하여 보았다. 대다수는 결혼 초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상당한 고통을 안고 있던지 아예 좋은 관계를 포기한 채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한국인끼리의 결혼이라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역시 언어적, 사회문화적 장벽이 다양한 면에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분석되었다.

첫째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어는, 감성에 와 닿으며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어는 우리가 아무리 숙달한다 해도 제2 언어(Secondary Language)일 뿐이다. 특히 싸울 때처럼 감정이 고조된 경우, 말에 대해 느낌도 다르고 표현이 제대로 안 되거나 왜곡되고 또 오해하게 되어 곧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런데 일본어 회화도 제대로 안 되는 단계에서 섣불리 결혼해버린 경우가 많았다.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다.

둘째, 사회문화적으로 참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서양 사람들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운 문화권에 있다고 하겠으나, 오히려 하나의 문화 틀 속에 있는 두 나라는 실제 생활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서로 정반대의 특성들을 많이 나타낸다.

한일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을 수년간 면담한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익명으로 소개하면서 세대별 남녀별로 분석, 종합해 본다.

10년 전 20대 후반에 일본에 와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였던 청년의 이야기다. 일본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어서 일본 처녀와의 결혼도 생각하던 중 같은 교회의 재일교포 자매를 사귀어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다. 청년은 일본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를 사랑하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시 섬세한 감정표현이나 이해 면에 부자유함을 실감하였다. 아내는 교포 3세로서 우리말을 전혀 못 하였는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려 하지 않고 착한 남편에게만 의존적이었다. 문화적인 차이, 즉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심리적 충돌이 많아지고 그 상처가 쌓이게 되었다. 자녀를 둘까지 낳았으나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해가는 삶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기는커녕 극히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아내는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선교의 사명이 없으며 부부간의 친밀감 대신 친정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삶의 공유부분이 더욱 작아지고 있었다.

이 형제의 고백은 한국의 건실한 남자 청년이 유학이나 직업으로 일본에 체게하면서 일본 여자와 결혼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의 문제를 정리해 보면, 1) 언어 소통의 장애와 2) 문화적 차이 이외에도 3) 본가와의 관계에서 첫째기(?)의 실패, 거기에 더하여서 4) 인생의 목표 불일치 등으로 결국 두 사람이 부부로서 성숙하고 친밀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뒤의 두 가지(3, 4)는 동족끼리의 결혼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두 사람이 친밀하고 성숙한 가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의 최대 실패이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원리는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새로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창 2:24), 결혼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두 사람만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깊이 사귀어 사랑과 이해의 영구적인 관계의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신 24:5).

30년 전 처녀로 일본에 유학 왔다가 일본인 총각과 연애 결혼하여 아들 낳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오십 대 중반 한국여성의 가족 3인을 모두 면담하였다.

부부간의 감정적 의사소통이나 상호 존중, 자녀와의 대화 및 올바른 신앙적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도 있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극복해 나갔던 아름다운 간증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다.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의 진로 문제에서도 신앙적인 원칙으로 지도하여 아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간섭하고 챙긴다고 하는 정도로 자녀와 남편 그리고 가정에 대한 헌신적이다.

이 가정의 일본인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의 가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과 가족에게 철저히 헌신,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들에게도 언어의 한계, 문화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혼 초기에 가정 이외의 주변 사회와 접촉하기보다 부부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고민하였고, 신앙에 있어서 전환점의 기회를 맞았을 때 격려와 배려를 통하여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왔던 것이, 모범적인 가정을 형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혼이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 각자 익숙하였던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양보하면서 그 가정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거리가 먼 국제결혼에서는 동족 결혼보다 더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결혼 초기부터 기도하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다면, 그 가정은 일본 사회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조은제 선교사 (정형외과 의사, 베드로선교센터)

유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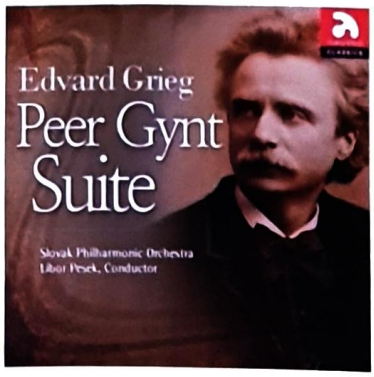


믿음좋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95장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 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흥! 그것 다 왕내숭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 데요. 이 시어미를 이겨 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무슨 노래였는데요?"
"거~ 뭐라드라.... 너 시어밀 당해 벰죄치 말고 너 용기를 더해 늘 물리치라~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유머는 유머일 뿐! 딴 생각을 말자!)

글. 이관형 권사 (자연유치원 원장, 한길감리교회)

음악이야기



그리그의 페르 귄트 모음곡
2번 작품 55
EDVARD GRIEG,1843-1907:
PEER GYNT SUITE #2, OP.55

솔베이그의 노래(SOLVEIG'S SONG)

오랜만에 성시의 독자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 해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일터마다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하얀 겨울 왕국의 기세가 시작되어 아름다운 풍경들을 산이나 들판마다 연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추위와 싸우며 여러 일터의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믿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 준비한 음악은 겨울의 북구의 찬 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연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일전에 슬라브 곡으로 차이코프스키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민족적 색채가 강했던 슬라브 음악가들처럼 시기적으로는 민족 특유의 음악가들이 저마다 뽐내던 시절에 노르웨이가 낳은 음악가로서 마치 피오르드 해안을 따라 차가운 북풍을 뚫고 미지의 세계로 항해하는 듯한 곡을 소개합니다.

그의 유명한 〈페르 귄트 모음곡〉 입니다. 1874년 당시 그리그는 드레스덴에 살던 입센으로부터 오페라 극본 〈페르 귄트〉의 곡을 의뢰받았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민족적 색채나 극적 판타지에 끌려 결국 멋진 작품을 완성합니다. 여러 번 연주용으로 모음곡을 정리한 후에 5막 26곡 가운데 우리의 귀에 익숙한 곡들도 있습니다. 3막 두 번째 곡인 〈솔베이그의 노래〉의 아름다움은 그를 친숙하게 만든 유명한 곡입니다. … 우리의 주인공 페르는 방랑벽이 있어서 늘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동키호테처럼 희망해 보이는 꿈을 쫓아다니는 현실도피자 형입니다. 그를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인, 솔베이그의 노래에는 고향 집에서 여름날 베를 짜며 멀리 떠난 페르를 그리며 부르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 봄이 가고 또 봄이 가고, 그 여름이 가면 또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나 그대는 내 님, 내 님이지. 내가 정성을 다하여 늘 고대하고, 또 고대하건만. 아! 그 풍성한 복을 참 많이 받고, 참 많이 받고, 오! 우리 하나님 보호하소서 늘 보호하소서. 쓸쓸하게 홀로 고대한 게 몇 해인가. 아! 그리워라, 나는 당신을 찾아갑니다. 당신을 찾아갑니다."

[출처] Solveig's Song from Peer Gynt Suit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中 솔베이그의 노래>|작성자 베토벤의 나라, 2막 1장)

"…만일 그대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기다린다면 그곳에서 그대를 만나렵니다. 내 사랑이여…" 그녀의 애절한 노래만큼 위대한 사랑이 마침내 페르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만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차가운 북구의 겨울을 훈훈하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환기 하기 전에 한 번 그리그의 음악을 틀어보시지요…〈아침 기분〉의 플룻과 오보에의 상쾌한 바람이, 그리고 애잔한 현악의 오케스트라가 커피 한잔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솔베이그의 노래〉가 흐르면 오늘 하루의 힐링은 큐티와 함께 새해의 멋진 활력을 가져다 주는 비타민 음악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18년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수선했던 시간은 뒤로하시고, 멋진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겨울 왕국의 한 모퉁이에서 따스한 난로가 둘러앉아 노닥거리던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

봄내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서른다섯 번째 음악이야기였습니다.

글. 김금찬 선교사 (JDM)

독자 기고문

웰빙 떡(Well-Bing Cake)

오늘도 운동장 한바퀴, 날씨 추워서인지 쓰레기 별로 없는데 으잉! 웬 큰 쓰레기가? 가까이 가 봤더니 값비싼 '무스탕 코트'를 깜빡하고 아이가 그냥 갔나 봐요.



에구! '이 좋은 옷을...' 하며 눈 툭툭 털어 들고 오며 든 생각, 이렇게 비싼 옷 주울 수 있는 넉넉한 세상인데 왜 다들 힘들다고 하지?

아! 먹을 떡이 없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 아빠 주신 생명의 떡이 없어 하는 말이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태복음 4:4)

앞 뜰 화단엔 아직 눈 속에 양배추 화초가!



요 화초 추운 겨울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보기 좋네요.
하하하 지난번 지희 교장선생님 창가에서, 요 화초 바라보며 "돼지고기 편육에 싸 먹으면 맛있겠다." 껄껄껄 웃으셔서 지희들 한바탕 웃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모든 일 맛있게 먹어야 행복하지요.
하하하 그러나 진짜 배부르려면 생명의 떡(말씀)을 먹어야 든든해요. 그 떡은 살도 안 찌는 웰빙떡이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아모스 8:11)

글. 박은주 권사 (소양초 행정실장, 춘천중앙감리교회)

잠깐!

"이슬람의 왜곡된 진리" 중에서

(저자 이동주 교수/선교신학연구소 소장)



다른 고등 종교들과는 달리 이슬람은 신.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여 기독교와 유사하게 보이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가장 크게 파괴하며 기독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적으로 활동하는 종교 집단이다. 자칭 어떤 유의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 이슬람을 "반기독 운동" 내지 "적그리스도 운동"으로 취급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기독교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서 반신적이며, 둘째,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반기독적이며, 셋째,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기에 반구원론적이다. 이슬람은 보통 종교 중의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보다 "선지자 무함마드"를 더 높이고, 성경 말씀(요일2:22-23, 요일4:1-3)과 같이 "적그리스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슬람은 이슬람 경전의 계시자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한다. 그 가브리엘은 성경의 가브리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반대로 예언하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적그리스도적으로 반박한다.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잉태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였음을 말한다(눅1:26-35). 반면에 꾸란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를 하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내지 "메시아"라고 칭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메카에서 12년 동안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영은 이름 없는 "그 영"(Sura 97:4) 또는 "우리의 영"(Sura 19:16-22)이었다. 그러나 초기 계시에 속하는 "그 영"(Sura 97:4)을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은 "가브리엘 천사"로 번역하였다. 사실상 꾸란은 첫 "계시"로부터 메카 계시 12년간 그 영의 이름이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이슬람의 반기독적 계시자의 성품 역시 성경적 가브리엘 천사의 성품과 판이하다. 성경은 가브리엘이 계시 대상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선포해 주었다(눅1:26-38). 그러나 이슬람의 "가브리엘"은 계시 대상이 두려워 죽을 정도로 강제로 압박하고 계시 상대자에게 나타나 몹시 고통스럽게 했다. ... 중략 및 정리 ... 계시 받던 때에 무함마드는 동굴 안에서 시끄러운 종소리와 같은 환청을 경험하고 한 영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무함마드 자신은 처음에 이 무서운 방문자를 악령(Jinn)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꾸란은 무명의 계시자 '루흐(ruh)와 동일시 한 "가브리엘"을 성경적인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과 일치시킨다. 즉 꾸란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영을 피조물 가브리엘 천사와 동일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빚고 있다.

그리고 또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이고 역사적인 죽음도 인정하지 않았다. 꾸란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면서 다만 살해되지 않은 예수의 승천만을 주장한다. 이슬람은 꾸란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고 속죄 행위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 꾸란적 무슬림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철저하게 왜곡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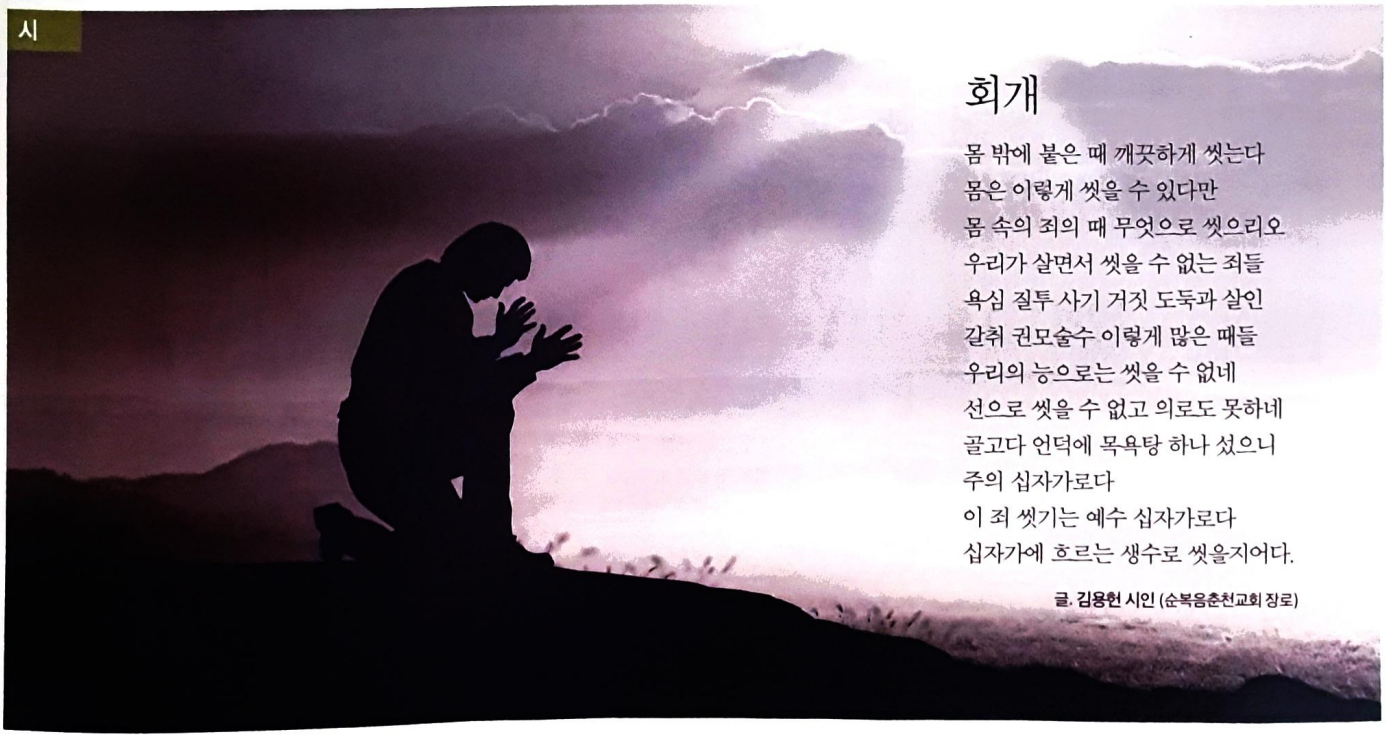
이슬람 구원론은 자기 공로와 자기 속죄에 의한 행위 구원뿐이다.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Sura 8:39)라고 하며 온 세계가 이슬람화 되기까지 "성전"이 계속 진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꾸란에는 비무슬림에 대한 무조건적 공격과 살해 명령들이 수없이 많다. 특별히 무슬림들과 전쟁하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알라가 구원해 준다고 믿는다. 무슬림들은 전쟁하다 죽은 전사자를 "순교자"라고 하는데, 이 순교자들에게는 알라가 모든 죄악을 "저울에 달아"보지 않고 즉시 "속죄"해 주며 그 보상으로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직행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극단적이고 꾸란적인 무슬림들은 자신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여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테러를 감행하여 무고한 비무슬림들을 죽이고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을 알라의 것이 되도록 점점 더 난폭해진다.

이처럼 이슬람은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설립되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투쟁을 벌이는 적그리스도적 운동 단체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잃어버린 무슬림들의 영혼들도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더욱 품고, 무슬림들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험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17억의 무슬림들에게 속히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글. 편집부

시



회개

몸 밖에 붙은 때 깨끗하게 씻는다
몸은 이렇게 씻을 수 있다만
몸 속의 죄의 때 무엇으로 씻으리오
우리가 살면서 씻을 수 없는 죄들
욕심 질투 사기 거짓 도둑과 살인
갈취 권모술수 이렇게 많은 때들
우리의 능으로는 씻을 수 없네
선으로 씻을 수 없고 의로도 못하네
골고다 언덕에 목욕탕 하나 섰으니
주의 십자가로다
이 죄 씻기는 예수 십자가로다
십자가에 흐르는 생수로 씻을지어다.

글. 김용헌 시인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성탄트리점등 감사예배



춘천시민과 함께 하는 2017 성탄트리점등 감사예배 및 점등식이 12월 3일(주일) 오후4시30분 춘천역 시민광장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신제원 회장) 주관으로 춘천교회 목사님 장로님 비롯하여 성도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감사예배에서는 수석부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정호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의 대표기도,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회장 신제원 목사(새춘천교회)께서 "예수님의 조상들"(마1:1-17)이란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고, 최동용 춘천시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찬양을 드린 후, 신제원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치고, 성탄트리점등식을 하여 춘천역 광장을 환하게 밝혔다. 매년 중앙로 로터리와 춘천역 시민광장에 세워지는 성탄트리 제작은 교성산업에서 하고 있다. 올해에는 원드비전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참여한 성도와 지나는 시민들을 대접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개관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의 사단법인 사랑나눔춘천지회(이수형 대표)가 춘천시로부터 춘천북부노인복지관(1천여 명 이용 규모) 5년간 운영 위탁을 받아 3개월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11월 27일(월) 오후 2시에 개관식을 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동용 춘천시장, 이수형 목사(사랑나눔춘천지회 대표), 김진태 국회의원, 김주열 춘천시의장, 조남진 혜민사랑의 집 대표 등 다수의 기관, 단체장과 이수홍 춘천시 노인회장을 비롯한 노인단체 임역원, 사회복지관계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박제호 관장)은 춘천시 북부권 복지기반 확충에 따라 신사우동, 신북읍, 서면, 동면, 사북면, 북산면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중 상설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라인댄스, 장수춤, 난타, 민요, 건강체조, 뮤직벨, 동양화, 뷰티, 자서전 쓰기, 스마트폰으로 친구 되기 등이며, 각 프로그램은 월~금요일 지정된 시간에 운영된다. 이 외에 탁구, 당구, 포켓볼, 물리치료를 월~금요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50석의 식당에서는 점심을 2,000원에 제공하며, 저소득,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설 이용자격은 춘천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춘천시 충열로 124, 255-9877)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정기총회

2017년 춘천교경협의회(김한호 회장) 정기총회가 11월 29일(수) 오전11시에 춘천경찰서에서 있었다. 수석부회장 김



원중 목사의 사회로 경목위원 최도윤 목사(행복을전하는교회)의 대표기도, 회장 김한호 목사(동부교회)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이어 춘천경찰서장의 인사 말씀과 감사패 전달이 있었고, 총무 정제호 목사(늘사랑교회)의 광고와 경목실장 김유식 목사(한신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정기총회가 열려 회계보고와 사업계획이 있었고, 2018년 신임회장으로 김원중 목사를 선출했다.

춘천쥬빌리 6주년 기념 12시간 기도회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 72차, 6주년 기념 12시간 기도회가 12월 11일(월)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단9:19)라는 주제로 중보기도자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는 임도현 목사(이스라엘 네트워크)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한민족의 사명", 이빌립 목사(통일소망선교회)께서 "탈북민을 통한 북한구원사역", 이성수 영화감독께서 "용서를 위한 여정, 일본", 타키모토 준 목사(일본 신시로교회)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하나 되어 여는 통일"로 각 세션을 맡아 말씀을 선포하였다. 또, 박인관 이사장(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염교회), 김원중 목사(춘천교경협의회장, 우리장로교회), 홍요셉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장, 예사랑교회), 한인권 장로(쥬빌리 상임위원장), 오성훈 목사(PN4N)등 교계인사가 함께 참이하여 순서를 맡아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73차 쥬빌리 춘천모임은 1월 15일(월) 저녁7:15분에 열린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가 12월 18일(월) 저녁8시에 거성교회(김수복 목사)에서 있었다. 12월 모임에는 김목훈 장로가 초대되어 이스라엘 회복과 통일 한국의 사명에 대해 선포하였다. 통일 한국과 기록한 대한민국, 한민족의 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마쳤다.

제90회 춘천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춘천홀리클럽(임운식 회장) 제90회 정기기도회가 12월 21



일(목) 오전5시에 춘천제일감리교회(원종국 목사)에서 있었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은 정기기도회를 모임 장소인 교회의 새벽기도회를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첫 모임을 했다. 새벽기도회 후, 임운식 회장의 인도로 2018년 임원 소개와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고, 합심기도 시간을 갖고 마쳤다.

춘천소년원의 성탄절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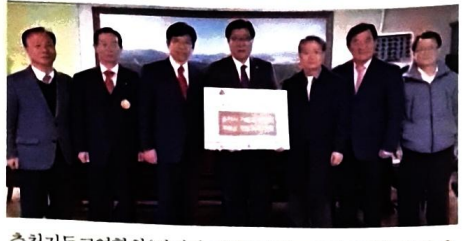
춘천소년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는 12월 21일(목) 오후 2시에 성탄절 축제를 열었다. 소망선교회(윤선애 전도사)의 주관으로 서울 오륜교회의 예배 인도와 섬김으로 매년 열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신 기쁜 소식이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며 열고 있는 이번 성탄절 축제에도 춘천임마누엘선교원 어린이들과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을 했고, 춘천의 소년원 섬김이들이 함께 하였다.

새터민을 위한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와 교제 모임인 통일한마당에서는 새터민을 위한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14일 저녁에 베드로병원앞 카페에서 열었다. 성탄의 의미를 전해주는 성탄파티전도법으로 은혜로운 시간도 갖고, 한 회원의 섬김으로 애찬을 함께 했다. 또 다른 회원 가정의 섬김으로 이불과 쌀도 나누며 사랑의 섬김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시청에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



춘천기독교연합회(신제원 회장)에서는 12월 29일(금)에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최동용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는 매년 각 교회로부터 성탄구제헌금을 모아 성금으로 기탁해왔다.

남춘천역에서 성탄절 이브 축하공연



12월 24일(주일) 저녁에 남춘천역에서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은혜교회(지용찬 목사), 온평교회(최승호 목사), 사랑의교회(윤대영 목사), 평화교회(염윤호 목사), 한영교회(박윤영 목사)가 연합하여 성탄공연을 하며 전도하였다. 이날 에는 국악공연, 남춘천중학교 난타팀등 성탄축하 공연을 하였고, 다함께 붕어빵 전도도 하였다. 나눔행사도 가졌는데, 사랑의 쌀 100포대를 어려운 노인복지시설에 나누었고, 중학생 3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하였다.

온누리교회, 33개팀 새벽찬양대의 새벽송



온누리교회(김창환 목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 예배와 감사축제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33개 팀으로 구성된 새벽찬양대가 성도들의 가정을 돌며, 아기예수오심을 찬양하는 새벽송을 하였다. 또한 연탄헌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주향교회, 춘천역 광장에서 한.일 동 시각 성탄절 찬양집회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는 12월 25일(월) 오전11시 성탄절 감사예배를 마치고, 오후3시에 춘천역 광장에서 한.일 동 시각 성탄찬양집회를 성도들과 함께 가졌다. 매년 한.일 동 시간에 열리는 찬양집회에서는 구세주 탄생하셨음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춘천의 성시화와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플래시몹과 같은 공연을 펼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갈릴리교회, 성탄절예배 및 베스트초청 성탄축하발표회



갈릴리교회(최영조 목사)는 12월 25일(월) 베스트초청 성탄절 행사를 했다. 전도대상자인 베스트를 초대하여 오전11시에 성탄절감사예배를 드리고, 오후1시30분에 아동부 부터 장년까지 온성도가 참여하여 성탄을 축하하는 발표회 시간을 열었다.

취재/사진. 이은정

교계 일정

2018년 신년교례회

- 일시: 2018년 1월 11일(목) 11시
- 장소: 춘천동신장로교회(이병서 목사)
-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2018년 3.1절 연합예배

- 일시: 2018년 2월 28일(수) 저녁7시
-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유동선 목사)
- 강사: 황교안 전 총리
-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요행사

《중고청 겨울방학 특강》

- **주제** 제사장나라 리더양성
- **대상**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누구나 참여 가능
- **일시** 2018년 1월 6일(토)부터
  매주 토(4회) 오전10~12시
- **장소** 1월 6일(토)-순복음춘천교회,
  13일(토)-광영교회,
  20일(토)-사랑의교회
  27일(토)-효자교회
- **강사** 김성욱 선교사, 박 훈 목사
- **강의내용**
  1) 성경적 국가관 및 한반도 상황의 영적도해2) 신본주의 vs 인본주의
  3) 4대강국과 이스라엘, 이슬람 이해
  4) 왕적 제사장의 비전

김한기 목사의 엘림수양관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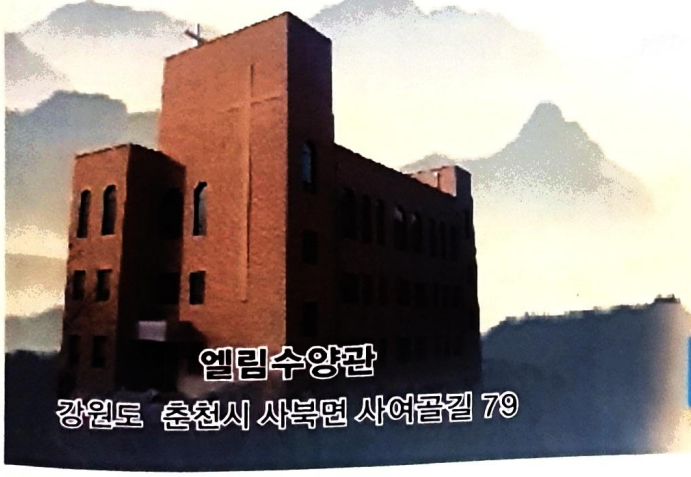
영육간의 치유를 위한
화요 치유 집회
◈ 매주(화) 오후 2시~4시
◈ 치유 상담 : 오후 1시

목요 실생활 영성세미나
◈ 매주(목) 오후 2시~5시
◈ 등록비 : 무료(중식제공)-자유헌금
◈ 개강일 : 2018. 1. 11(목)



김한기목사
은혜성산교회 담임
춘천엘림수양관 관장
CTS "상한마음의 치유" 설교자
CTS "빛으로 소금으로" 설교자
C채널"상한심령의 치유"설교자
극동방송 "은혜의 동산" 설교자

차량운행안내
경기광주 오전9:30
모란역5번출구 오전10:00
잠실역5번출구 오전10:30
(목요일은 잠실역 운행 없슴.)
춘천이마트 오전11:20
춘천역2번출구 오전11:30



엘림수양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여골길 79

엘림수양관 (033)244-1270
은혜성산교회 (031)797-0191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 2529 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인길 6번길 18
문의 : 010 3180 5330 (지도 김귀선)

협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 8798 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5596.3702 (총무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솔거운탁구(후평동지사점집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 (지휘자)

춘천목회자 섹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게시는 목회자
일시 : 매주 월 오후 2시 - 5시
장소 : 나눔교회
문의 : 010.5521.3779

교회음악(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피아노 1층
문의 : 010.6375.8874

행복제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박물관 앞)
문의 : 010.3585.3620 (이영규 목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문위원
유진형 목사
안디옥감리교회

자문위원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자문위원
유동선 목사
춘천중앙성결교회

이사장
박인관 목사
광염감리교회

수석부이사장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본부장
조영춘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이병철 목사
주향장로교회

사무차장
최상도 목사
사암성결교회

사무국장
이은정 권사
주향장로교회

회계
홍순신 권사
평화동산교회

감사
황병호 장로
춘천제일장로교회

홀리클럽회장
임운식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홀리사무국장
석기호 장로
광장감리교회

목회자 이사
손학균 목사
석사감리교회

목회자 이사
이성신 목사
창대감리교회

목회자 이사
안창원 목사
우두감리교회

목회자 이사
임용웅 목사
춘천명성감리교회

목회자 이사
최영조 목사
갈릴리교회

목회자 이사
김종호 목사
효자감리교회

목회자 이사
김창환 목사
온누리교회

목회자 이사
김원중 목사
우리교회

목회자 이사
김창성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목회자 이사
김한호 목사
동부장로교회

목회자 이사
조용아 목사
성광장로교회

목회자 이사
지용찬 목사
은혜장로교회

목회자 이사
정재호 목사
늘사랑교회

목회자 이사
김선일 목사
소양성결교회

목회자 이사
피종호 목사
나눔성결교회

목회자 이사
이주호 목사
소양제일성결교회

목회자 이사
신재원 목사
새춘천교회

목회자 이사
오생락 목사
하늘평안교회

목회자 이사
이영규 목사
신북성결교회

목회자 이사
하기철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목회자 이사
신성균 목사
열린순복음교회

목회자 이사
오의석 목사
순복음조은교회

목회자 이사
이상열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 이사
차덕수 목사
강원침례교회

목회자 이사
김수복 목사
거성침례교회

목회자 이사
이지인 목사
춘천침례교회

목회자 이사
홍요셉 목사
예사랑교회

목회자 이사
정선문 목사
제자들교회

목회자 이사
조영호 목사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 이사
이봉석 목사
춘천구세군교회

전문위원
성기문 장로
전 춘천법원장

전문위원
이영길 선교사
우간다대학교학장

전문위원
박민수 장로
전 춘천교대학장

전문위원
윤재선 목사
산천무지개교회

평신도이사
전 시의장 김영일 집사
중앙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영광한의원
이용규 장로
석사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참사랑의원
정형만 장로
소양제일교회

평신도이사
매일관광
허봉 장로
중앙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우리소아과의원
이병일 장로
나눔성결교회

평신도이사
와이신협
임운식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평신도이사
앤투어여행사
김지현 집사
동부장로교회

평신도이사
디아펠리즈
남궁연 장로
중앙성결교회

평신도이사
강원농원
임희방 장로
동부장로교회

평신도이사
영서화물
강연술 장로
신성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자스민
박선남 집사
한제채플

개인

가천흥 강민승 강민찬 강상모 강석봉 강옥자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정희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여립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권현정 경동현 김경애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관수 김경순 김경희 김기영 김도희 김매순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보경 김복실 김복자 김상욱 김상화 김성희 김설아 김생수 김세환 김수국 김숙희 김순덕 김순영 김순옥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목 김영일 김영수 김영순 김영신 김영희 김영태 김예은 김옥선 김옥자 김용기 김원중 김용배 김은아 김은영 김은희 김인아 김일섭 김정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주봉 김주혁 김중녀 김중숙 김종옥 김종익 김중은 김중찬 김중희 김지영 김지훈 김진숙 김진희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혜숙 김화분 남궁자 남상구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호 랑영철 류현구 문은천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길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순순 박명관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인수 박인순 박병화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완영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애 박중일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현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석 서성자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일순 손학균 송갑수 송경화 송미화 송영인 송수정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영선 신종길 심규향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안한나 양미선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업근혜 업기홍 업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진화 염은희 염정옥 오순자 오제영 오재영 오준영 오흠금 오흥수 옥혜숙 용애중 용영옥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상고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선 유정신 유정희 유해미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영기 윤은옥 윤은이 윤흥목 원병열 원예슬 원유미 원희정 윤성자 윤애자 윤정희 윤학병 원선미 원희숙 이가현 이갑용 이경구 이기자 이기환 이광필 이규현 이대반 이문희 이명선 이명숙 이영순 이영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미영 이병일 이보람 이복춘 이봉연 이상만 이상숙 이선임 이상숙 이성은 이숙희 이순옥 이순자 이소영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윤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유진 이윤규 이윤숙 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은옥 이인숙 이정미 이종완 이종헌 이재근 이재선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충훈 이태우 이하검 이현석 이혜란 이혜옥 이효인 이희화 임경혜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씽용 임영광 임우선 임문식 임문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숙 임철용 장기영 장동지 장선영 장소영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당자 전윤배 전정미 전정희 정국환 정계지 정규시 정명옥 정미선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창현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기숙 조남진 조돈신 조영숙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원순 조정선 조진경 조현옥 주영호 지윤성 지정훈 차경자 차재옥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돈식 최동규 최영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달 최영순 최영희 최옥순 최윤영 최인숙 최재중 최정자 최종대 최종인 최종호 최홍준 최효숙 주신지 하문옥 한건영 한영수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현희선 함종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순덕 현연희 현재용 홍성애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은숙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황혜림 황기현 황금심 황병찬 황병호 황영희 황은주 황정숙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시밀성결교회 산솔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솔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한울성김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신교문화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장기방문요양센터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